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5. 19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바이든, 백인우월주의를 가장 위험한 테러 위협으로 강조
 - 5.14 언론은 「바이든」 대통령이 5.13 美하워드대 졸업식 연설에서 “백인우월주의는 美 본토에 대한 가장 위험한 테러 위협”이라고 발언하며 지속 발생하는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였다고 보도
 - ※ 「바이든」은 '21.1. 대통령 취임사에서 백인우월주의에 의한 테러 위협을 언급
- 美 언론, 자국 국방부 대테러 프로그램 비판
 - 5.14 NYT는 세계 각지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 특수부대가 현지 협력자를 선정하거나 대리戰 수행 세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전력 등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
 - ※ 美 국방부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

유럽

- 英, 러 바그너그룹을 '테러 조직'으로 공식 지정하는 법안 추진
 - 5.11 언론은 영국이 최근 러시아 용병단체 바그너그룹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기 위해 법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, 법제화가 완료되면 영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금지되는 등 재정적 제재도 부과될 수 있다고 보도
 - ※ 프랑스 의회도 同그룹의 테러단체 지정을 EU에 촉구했으며,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既 지정
- EU,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포괄규제안 추진
 - 5.16 EU 회원국들은 암호 산업이 테러조직 재정 지원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, 암호·토큰화 자산 사업시 사전 면허를 획득하도록 하고 거래 추적 관련 내용을 담은 포괄규제안을 승인, '24년부 시행 예정
 - ※ 언론은 암호자산 기업들이 EU와 같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

아 · 태평양

- 카카오, UN본부 회의서 AI활용 디지털 안전 성과 발표
 - 5.11 언론은 카카오가 지난 10일 UN 대테러사무국에서 주관하는 '테러 목적의 정보통신기술(ICT) 악용에 대한 지침서 마련 회의'에 참석하여 디지털 안전을 위한 정책과 사례를 발표했다고 보도
 - ※ △유해 콘텐츠 유통을 막는 디지털 안전 정책 △AI 기술을 통한 선제적 대응 사례 △협오표현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협력 모델 등 공유

중 동

- 이스라엘 · 팔레스타인 교전 5일만에 휴전 합의
 - 5.14 언론은 이스라엘軍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軍이 이집트의 중재에 따라 「아드난」 사망*으로 勃發한 5일간의 교전 (사망 35명, 부상 210여명)을 중단하는 정전 협정에 합의했다고 보도
 - * 5.2 PIJ 고위간부 「아드난」 이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86일간 단식 중 사망
- 시리아, 대테러 작전을 통해 ISIS 지도자 체포
 - 5.15 시리아 민주군(SDF) 미디어센터는 시리아 특수부대가 남부 하사카 일대에서의 대테러 작전을 통해 하사카 남부지역과 데이르 알조르 북부지역에서 테러활동을 계획하던 ISIS 지도자를 체포하고 무기 등을 압수했다고 발표

아프리카

- 부르키나파소, 이슬람 과격파 민간인 33명 살해
 - 5.15 언론은 지난 11일 이슬람 무장세력이 부르키나파소 서부 무훈州 우루마을을 습격해 민간인 33명을 살해했으며, 軍당국이 同무장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현재 군사작전을 진행중이라고 보도
 - ※ 「바싱가」 무훈州 주지사는 주민에게 경계심을 높이고 보안軍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

아프간, 병원-장례식장 총기·자살폭탄 테러사건

- '20.5.12 아프간 카불市와 낭가르하르州에서 총기 및 자살폭탄테러가 발생, 56명 사망 · 150여명 부상
 - 카불市에서 무장 3인조 괴한이 '국경 없는 의사회*(MSF)'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 침입하여 수류탄을 터트리고 총기를 난사, 신생아 2명 등 24명 사망 · 16명 부상
 - * 국제 민간 비영리단체로 전쟁·질병·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호
 - 또한, 낭가르하르州에서는 정치인·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한 경찰 사령관 장례식장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, 32명 사망 · 133명 부상
- 아프간 「아슈라프 가니」 대통령은 同테러 사건을 계기로, '美-탈레반 평화협정*'에 의해 중단되었던 탈레반에 대한 공격 재개를 지시
 - * '20.2.29 카타르 도하에서 美정부와 탈레반이 아프간戰('01.10~) 종식 및 域內 안정화를 위해 美軍철수·테러단체不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평화협정 체결
- 한편, ISIS가 장례식장 테러 배후를 자처하였으며, 당시 무장반군 조직 탈레반은 同테러 사건과의 연관을 부인

< 탈레반(Taliban) >

- (테러단체지정) 캐나다('13.5), 러시아('03.3), 키르기스스탄('06.12), UAE('14.11), 카자흐스탄('05.3)은 테러단체로 지정, UN·美·英 등은 평화협상을 고려, 테러단체로 未지정
- (목표/이념) 아프간內 외세축출 및 이슬람 신정국가 수립('94.8 결성) / 이슬람 극단주의
- (조직규모) 약 55,000~85,000명('20.5, UN), 100,000명('19.8, 美 민주주의 수호재단)
- (주요특징)
 - '01.9.11 美 테러의 배후인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 인도 거부로 아프간 주요 지역에서 축출
 - '21.4 美軍 철수 발표 후 급속도로 세력 확장, '21.8.15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장악 및 대통령궁을 점령하며 20년만에 정권 再 장악